

광산업진흥회, 유럽 광통신분야 마케팅 통했다

‘ECOC 2021’ 참가...140만달러 구매계약 체결
코로나 상황 속 해외 판로개척·기술 우수성 홍보

한국광산업진흥회(이하 진흥회)가 최근 열린 유럽 최대 광통신 전시회인 ‘ECOC 2021(프랑스 보르도)’에 참가해 140만달러의 구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주목을 끌었다.

22일 진흥회에 따르면 지난 13-15일 유럽 최대 규모의 광ICT산업 전시회 중 하나인 ‘ECOC 2021’에 한국 기업 11개사와 함께 공동관을 구성해 국내 광통신융합 기술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현지 바이어 수출 상담을 지원하는 등 유럽지역 판로 개척 및 광통신 분야 마케팅 활동을 적극 지원했다.

그 결과 유럽 전역 해외 바이어들에게 국내 광네트워크 기반 제품과 신기술 우수성을 입증한 동시에 이번 ECO C전시회를 통해 수출 상담 2천637만달러와 함께 광케이블접속함 및 광케이블 등 140만달러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광통신관련 기술 및 제품 관련 상담이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진행되면서 향후 유럽시장 진출 및 납품 계약 관련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 협의를 통해 계약 성사가 이뤄질 것으로 진흥회

측은 전망했다.

이번 성과에 앞서 진흥회는 최근 4년간 ‘ECOC’ 전시회에 한국 공동관으로 참가하는 등 지속적인 해외 마케팅 지원활동을 펼쳐왔다.

여기에서 ‘ECOC 2021’ 전시회에서는 광커넥터, 광케이블 및 접속함, 광트랜시버 변환기 등 광응용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광통신 네트워크 장비를 주축으로 내세워 유럽 광섬유·통신 IC T 시장을 전략적으로 공략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ECOC 2021’ 공동관으로 파견된 11개사는 지난 2020년 오프라인으로 직접 전시회에 참여하지 못했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에 주력한 결과, 광통신 및 광융합 관련 해외 바이어들과의 상담이 급증했다.

‘ECOC 2021’ 공동관으로 참여한 ㈜네온포토닉스 최웅 대표와 ㈜엑스빅테크 김행정 대표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진흥회측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로 인해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 및 판로 개척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면서 “해외 기업과의 네트워크 발굴을 통해 점차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조용진 진흥회 상근부회장은 “올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국내 광통신기업의 참여 의지가 대단했다”며 “전시회가 끝난 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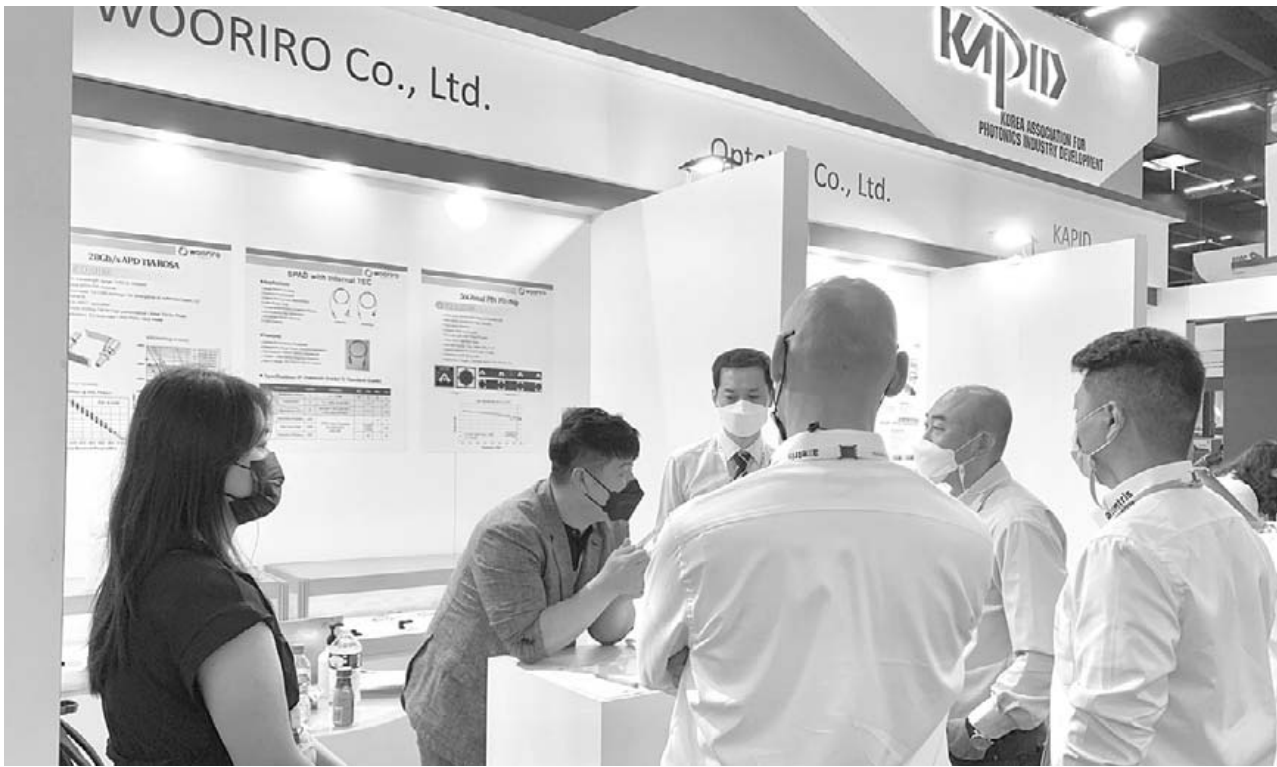
기업 매출 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향후 기업들의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해 해외 유망전시회 공동관(미국 OFC 2022·독일 Light & Building 2022·두바이 아랍헬스 2022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진흥회는 이번 유럽 현지에서 기업과 상담했던 실질적인 해외 바이어를 오는 11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될 ‘2021 광융합 산업 로드쇼’에 초청해 성과 확산을 계획중이다.

/박은성 기자



한국광산업진흥회는 지난 13-15일 열린 ‘ECOC 2021(프랑스 보르도)’에 참가해 140만달러의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진은 한국 기업이 해외 바이어들과 상담하는 모습. <한국광산업진흥회 제공>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 전통시장 지원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회장 임경준·사진 오른쪽서 네 번째)는 지난 16일 추석 명절을 맞아 양동시장에서 ‘전통시장 활력 회복 및 소외계층 따뜻한 명절보내기’를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인들이 후원한 성금 1천만원으로 전통시장 물품을 구매, 지역 복지시설 10여곳에 전달했다.

임경준 중기중앙회 광주전남회장은 “코로나 19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장보기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이 다시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수희기자

해양에너지, 채용연계형 인턴 모집

㈜해양에너지(대표이사 김형순)는 지난 9일부터 채용연계형 인턴을 모집중이라고 22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경영관리·신규사업·영업 및 서비스·안전관리(4년제 대학 졸업자 및 2022년 2월 졸업예정자)와 영업·안전관리(2·3년제 대학 졸업자 및 고등학교 졸업자)로, 접수기간은 오는 30일까지며 지원서는 온라인(<https://recruit.hyenergy.co.kr>)로만 접수한다.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 1차·2차 면접 및 건강검진의 절차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하며 선발된 인원은 4개월간 인턴으로서 공통직무 교육과 부서별 실무업무를 익힌 후 평가를 통해 우수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자세한 지원 자격 요건과 제출 서류 등은 ㈜해양에너지 홈페이지(<https://www.hyenergy.co.kr>) 및 SNS(페이스북·인스타그램), 취업포털사이트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기수희기자

금융당국, DSR 규제 확대 앞당기나

<충부채원리금상환비율>

내달 가계부채 추가대책 발표...전세대출 규제는 고심

금융당국은 앞서 예고한 대로 조만간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충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조기 강화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전세대출 규제를 두고 고심하는 모습이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0월 중 가계부채 관리 계획을 발표하기 위해 세부 방안을 두루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 5-6%, 내년에는 4%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8월 말 기준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의 최근 1년간(작년 8월 대비) 증가율은 9.5% 수준이다. 5대 시중은행만 놓고 봐도 이달 16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이 지난해 말보다 4.69% 증가하는 등 목표치에 근접한 상황이라 목표치를 맞추려면 고삐 죄기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추가 대책으로 우선 거론되는 방안은 DSR 규제 확대 일정 조정이다. 개인별 DSR 규제 확대 시행 시기를 앞당기거나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느슨한 제2금융권에 지금보다 강화된 대출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지난 7월부터 개인별 DSR 40% 적용 대상을 전제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내년 7월부터는 전 금융권 대출을 합쳐 총대출액 2억원이 넘는 경우

로, 내후년 7월에는 총대출액 1억원이 넘는 경우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DSR 규제는 은행권에 40%를 적용하고 있지만 제2금융권에는 DSR 60%까지 가능하다.

규제 차이를 위해 제2금융권에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1:2 금융권에 일괄적으로 DSR 40%를 적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 DSR 규제 강화 검토는 일찌감치 끝낸 상황으로, 규제 강화에 따른 서민 피해 등 보완 방안과 함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현재 가계대출 증가분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전세자금대출이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증가세가 과

도하다고 보고 관리 방안을 살펴보고 있지만 실수요자 피해 등 민감성을 이유로 전면으로 내세우지는 않고 있다.

5대 은행만 놓고 보면 이달 16일 기준 전세대출은 지난해 말 대비 14.74% 증가했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분의 49.38%를 차지한다.

이미 적용한 규제 때문에 올해 새로 나가는 주택담보대출은 많지 않고 전세대출과 정책대출, 집단대출이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진단이다.

금융위 관계자도 “실수요와 관련한 대출 위주로 놓고 있어 정책적으로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이라고 말할 정도다.

/연합뉴스

무섭게 뛰는 대출금리...2주만에 0.2-0.3%p ‘경충’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불과 2주 만에 0.3%포인트(p) 인파이나 뛰는 등 대출금리 상승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은행이 대출금리의 기준으로 삼는 코픽스(COPIX·자금조달비용지수) 같은 지표금리가 오르는 데다

정부로부터 가계대출 규제 압박을 받는 은행들이 가산·우대금리 조정을 통해 대출금리를 시장금리보다 더 큰 폭으로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2주새 주담대 고정금리 0.35%p ↑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

한·하나·우리은행의 17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는 연 2.961~4.52% 수준이다.

이는 2주 전인 이달 3일(2.80~4.30%)과 비교해 하단과 상단이 각 0.161%포인트, 0.22%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변동금리가 아닌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형) 금리도 같은 기간 연 2.82~4.441%에서 3.17~4.67%로 상승했다.

신용대출의 경우 17일 현재 3.10~4.18% 금리(1등급·1년)가 적용된다. 3일(3.00~4.05)보다 상·하단이 모두 0.1%포인트 낮춰졌다.

◇코픽스 0.07%p ↑...금리인상폭 3배
이 같은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상 폭은

시장금리 등 조달비용을 반영한 지표금리 상승 폭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 14일간 신규 코픽스는 불과 0.95%에서 1.02%로 0.07%포인트 올랐을 뿐이다. 결국 0.2%포인트가 넘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오름 폭은 지표금리(코픽스) 상승 폭(0.07%포인트)의 약 3배에 이르는 셈이다.

/연합뉴스

TIME CITY

명품시계수리전문점

명품브랜드 시계 수리전문점

타임시티 (TIME CITY)

책임 A/S

명품 쿼츠 시계 수리전문

오토매틱 수리 전문

스위스, 독일 시계 수리장비 최다보유 (A/S센터와 동일장비 보유)

우편 집중국

롯데마트

힐스테이트 110동

타임시티

현대 힐스테이트 101~109

신협

겨자씨교회

보훈병원

광주 광산구 첨단강변로 100 (쌍암동 695-1)

영업시간

평일 10:00 - 20:00 공휴일·토요일 10:00 - 18:00 일요일 휴무

문의

010-8475-5472 * 근무시간에만 통화가능

급매 전문

늦으시면 앓차하십니다

상가건물

○ 고창 공음면 (2차선 포장도로변)

법성포, 가마미해수욕장 근거리

대지3,707㎡ 가공공장, 창고, 판매장3개동

매가:6억8,000(시세50%)

***가든경관비집,농산물직판장,휴게소종합매장 최적

화순군 화순읍 대리 동호인주택지

○ 광주에서10분

○ 자연녹지 6,600㎡

○ 급매가:5억3,800만원(시세50%)

***동호인주택4~6동 개발 최적

급히 구합니다 --- 손님 다수 대기중입니다

○ 병원신축용땅 1,000㎡ 내외

○ 월세 및 투자용 상가 건물 10억~50억

***부동산 무엇이던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 유재관 010-6495-3787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CMYK

+